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23호

KPGA 선수권대회

우승한 최승빈 “학업과 골프를 병행해온 선수로 성공해 롤모델이 되고 싶었다”

강명주 골프한국기자

강신욱 교수의 스포츠클럽

고(故)최숙현 선수의 사망 3주기를 기리며

임혜정 헬스인뉴스기자

스포츠혁신 4년 ...

인권 사각지대 ‘학교 밖 합숙소’, 또 아이가 죽었다

김용현 뉴스타파기자

한민희의 Law&Rule

김대현 이영하 학교 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차승윤 일간스포츠기자

스포츠오일머니

축구 이어 골프계도...스포츠판 쥐고 흔드는 중동자본

안경남 뉴시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신일본스포츠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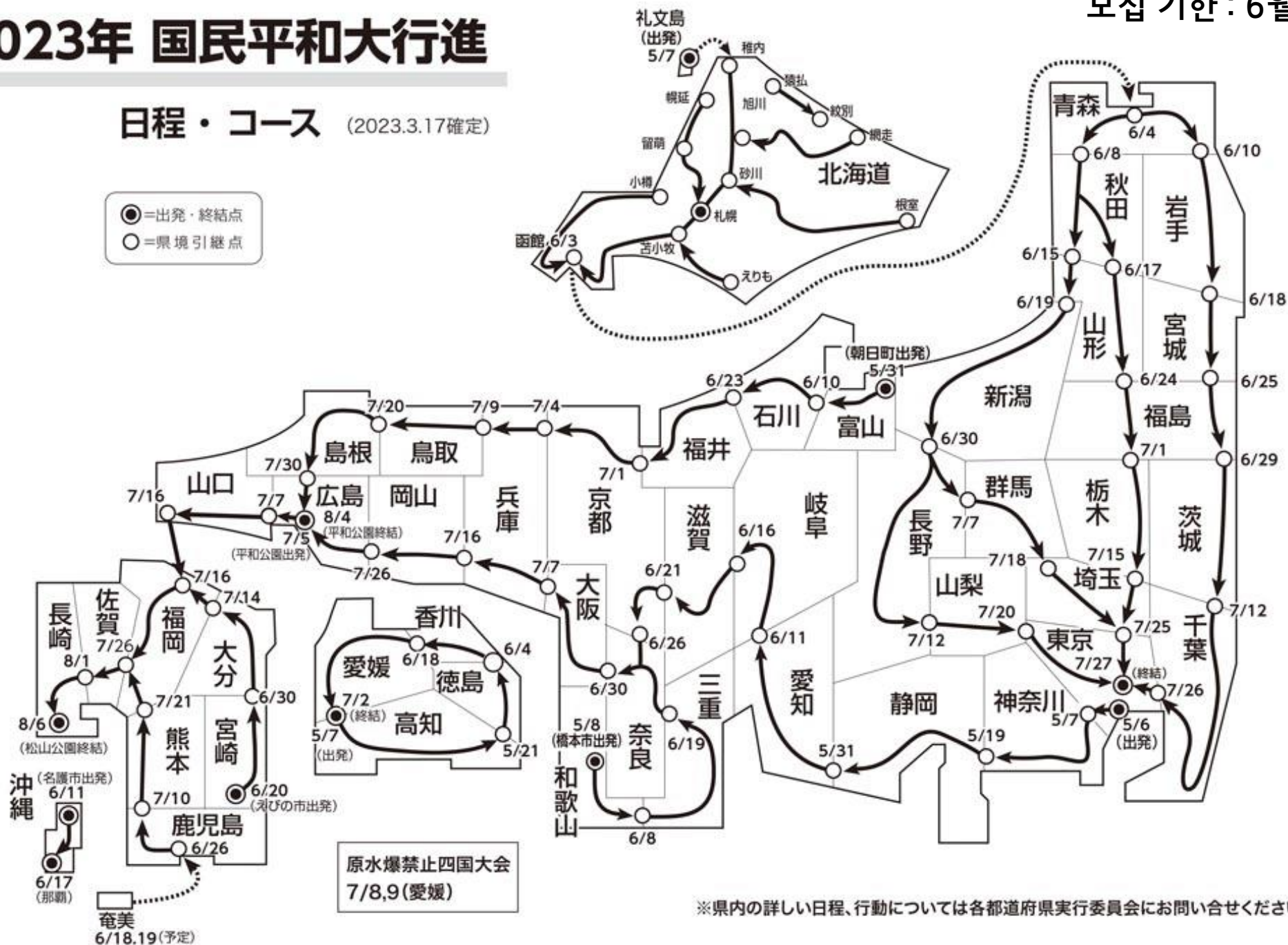
평화행진마라톤 참가자 모집

모집 기한 : 6월 13일까지

2023年 国民平和行進

日程・コース (2023.3.17確定)

●=出発・終結点
○=県境引継点



일정(안)

- 7월 12일(수) 평화 대행진 치바(千葉) 현 코스 출발
- 7월 26일(수) 치바 코스 종점. 출발 날부터 종점 날까지 도중에서 참가
- 7월 26일(수) 평화 대행진 도쿄 코스 출발
- 7월 27일(목) 도쿄 코스 종점.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7월 28일(금), 29(토) 자유시간, 가나가와 현 워킹 교류, 가나가와 현 숙박
- 7월 30일(일) 매달 가와사키 마라톤 참가(구경), 교류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가나가와 현 연맹이 비용 부담

- 7월 31일(월) 신칸센으로 히로시마로 이동
- 8월 1일(화) 평화 대행진 히로시마 코스 도중에서 참가
- 8월 4일(금) 행진 종결 (히로시마 평화 공원), 오후 국제 회의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8월 5일(토), 6일(일) 평화 집회 참석 후 귀국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전국 연맹이 비용 부담

1. 일본 체재 중의 교통, 숙박, 식사 등 비용은 일본 측에서 부담합니다. (개인적 비용 제외)
2. 평화 행진중 숙박 시설은 각 지방의 평화 행진 실행위원회가 확보합니다.
3. 일본에 체류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에 본인 부담으로 여행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체 일정 중 일부만 참여’ 도 조율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간단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자유양식 A4 2매 이내)를
sports-cm@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한 최승빈 “학업과 골프를 병행해온 선수로 성장해 롤모델이 되고 싶었다”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경남 양산의 에이원 컨트리클럽(파71)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66회 KPGA선수권대회(총상금 15억원)가 펼쳐졌다. 그 결과, 최승빈이 마지막 날 버디 8개와 보기 1개로 7타를 줄여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합계 14언더파 270타.

KPGA 코리안투어 첫 승의 기쁨을 만끽한 최승빈은 우승 공식 기자회견에서 "어렸을 때 TV 중계로만 보던 선배 선수들을 이 대회에서 볼 수 있었다. 대회 기간 동안 KPGA선수권대회의 역사와 전통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꿈만 같고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승빈은 "17번홀 버디가 우승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17번홀에서 버디에 성공한 뒤 18번홀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사실 이번 대회는 다른 대회와 달리 1라운드부터 우승을 목표로 경기했다. 이번 대회에선 정말 첫날부터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했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2001년생 동갑인 박준홍 선수와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최승빈은 "일단 내 플레이에만 집중했다. 내가 준비했던 것만 보여주자는 다짐으로 경기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박준홍 선수를 비롯해 김민규, 조우영 선수 다 친구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했던 사이고 다들 잘 성장한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최승빈은 "서로 자극이 된다. 다 같이 잘해서 기분이 좋다. (웃음) 박준홍 선수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골프 시작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평균 드라이브 거리가 321야드 정도를 기록한 최승빈은 "어렸을 때부터 장타자였다. 정찬민 선수와 연습 라운드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둘 다 세계 치면 정찬민 선수가 당연히 더 멀리 나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투어에 데뷔해 이번 대회 전까지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던 최승빈은 "2022년은 투어 첫해였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1부투어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초반에는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부분 등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진행한 전지훈련에서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승빈은 "지난해 콘페리투어 큐스쿨에도 응시해 가서 외국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배울 점이 꽤 많았다. 아마추어 때는 좋은 성적을 내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경기했다. 아마추어 시절에도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투어를 뛰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쇼트게임이 부족했다'고 언급한 최승빈은 "티샷의 정확도도 2022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특히 올해 티샷이 안정되다 보니 이전보다 더욱 자신 있게 플레이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 같은 경우 티샷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샷부터 그린 위까지 연결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

'13세에 골프를 시작한 뒤 아마추어 골퍼인 아버지에게 골프를 배웠다'고 밝힌 최승빈은 "아버지가 골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셨다. 독학도 많이 했다. 지난해부터 이시우 프로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으로 학업과 골프를 병행하고 있는 최승빈은 "고등학교 때까지 정규 수업을 다 받았다. 고등학교는 제주 대기고등학교를 나왔다. 학교가 끝난 뒤 훈련을 시작했다. 부모님께서 골프를 시작했을 때부터 공부와 골프를 병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병행하면 운동이 잘 안될 것이다'라는 말도 종종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품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승빈은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 꼭 성공해 우리나라에서 롤모델이 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최승빈은 올 시즌 목표에 대해 "5년 시드를 받았다는 것에 행복하다. 첫 승을 이뤄냈으니 이제는 제네시스 대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우승상금 3억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승빈은 "부모님이 이사를 계획 중이시다. 이사 비용에 보탬 것이다. 나는 현재 학교 때문에 용인에서 거주 중이다"고 답했다.



[강신욱 교수의 스포츠칼럼]

고(故)최속현 선수의 사망 3주기를 기리며

6월 26일은 고 최속현선수(이하 고 최 선수)가 사망한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자살 직전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엄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직도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로 남아 있다. 극단적인 선택 전에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등 7군데 공공기관에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애타게 하소연했지만 그 어디도 나서는 데가 없었다는 것도 가히 경악할만했다. 물론 그들은 여론의 맹렬한 지탄과 비난을 받았지만 고 최 선수 일로 그 어떤 문책도 받지 않았다.

고 최 선수 사후 지난 3년간 가해 당사자인 운동처방사와 감독, 그리고 선배 선수는 각각 징역 8년, 7년,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체육계 인권 개선을 위한 최속현법과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정, 설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엄한 처벌과 법, 제도가 확립되어 체육계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개선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선수 인권이 정말 개선되고 있을까? 개선을 기대해도 좋을까? 만일 그런 환상과 기대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순진하거나 체육계 현장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숨기려는 사람이다.

폭행, 성폭행, 길들이기, 학습권 침해 등 주로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체육계 문제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승리 지상주의, 그리고 예방과 대응 시스템 부재 및 부족, 인권 교육 부실, 온정주의, 심지어 지도자 처우 부실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틀린 지적이 아니다. 그러한 지적을 토대로 정부와 체육계는 정말로 많은 대책과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런데도 왜 고 최 선수와 같은 비극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고 최 선수 사후 2년간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면 여전히 실업선수의 7명 중 1명(13%)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유형 총 198건 중 가장 많은 51건(26%)이 선수 폭력 사건이었다. 고 최 선수 사건이 현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반증이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지난 18년간 280조를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개선은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즉 근본적으로 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체육계 폭력의 핵심적 원인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소위 승리 지상주의다.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고 최 선수와 같이 실업팀 선수들이 재계약할 때나 대학과 실업팀, 프로팀에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우선하는가? 두 말할 것 없이 경기 성적이다. 인성과 앞으로의 가능성, 학과성적 등은 다음 기준이거나 아예 무시되는 상황이다. 실업 선수가 재계약을 결정할 때나 진학과 실업, 프로선수 선발 시 경기력 요인이 최우선인 엄연한 체육계 환경에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승리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차라리 잔인하다. 운동을 즐기라고, 승리보다는 페어플레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는 이들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다. 경기력이 하이 클래스에 오르거나 경기력으로 인해 삶이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면 강요 안 해도 누구나 경기를 즐기게 된다.

일반 학생의 경우 학생 자신이나 교사, 학부모에게 학생의 인성이나 체력은 일단 뒷전이다. 향후 학생의 미래를 위해 이들이 학과성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듯 선수들 중 5~10%만이 실업, 프로팀에 진출하는 이 치열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수,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가 승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체육계 환경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그럼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까? 물론 현재와 같이 체육계의 여러 인권, 윤리 센터가 좀 더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예방 기능을 좀 더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복지 부동하거나 무능, 부정한 관리는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지도자 교육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선수들에 대한 학교 교육은 절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수들 대상의 다양한 진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음 장 계속

아울러 운동선수 선발을 위한 현재의 대학입시 전형은 반드시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모든 노력들과 함께 실업팀 선수들이 고 최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아마추어 선수로 자리 잡도록 하면 좋겠다.

하루 종일 운동하는 선수들은 프로선수들이다. 아니 그들도 매일 하루 종일 운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실업 선수들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소속 선수들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한다. 다양한 대회를 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국체전에 선수들을 과도하게 몰아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전국체전 때문에 지체단체 소속 선수와 지도자가 존재하고, 전국체전이 한국체육 발전의 초석인 것은 틀림없지만 소속 선수와 지도자에게 가하는 압박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1980년대 초반 프로야구와 프로 축구가 탄생하기 전까지 실업팀 선수들은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훈련했다. 그리고 이들은 은퇴 후 원하면 모두 회사에 남았다. 이런 풍토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실업팀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선발할 때 최소 3년 무기직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은퇴나 심각한 부상으로 선수, 지도자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오전에 근무하던 부서로 돌아가서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년을 마치는 근무 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제는 실업 선수와 지도자들이 전국체전을 위한 떠돌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물론 채용 시 선수와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현재와 같이 급료를 조금 더 받고 1년 계약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급료를 조금 덜 받고 정규직으로 가는 투 트랙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치단체와 기업이 어차피 모든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체육계와 자치단체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볼 일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방 교육청에서 보듯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평생 직장인으로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고 최 선수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매우 근본적인 또 다른 접근이 될 것이다. 3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빈다.

스포츠혁신 4년...인권사각지대 '학교 밖 합숙소', 또 아이가 죽었다

지난해 4월 김포FC 18세 이하 팀 소속 선수 정 모 군이 김포시 마산동 소재 합숙소 4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SNS 글에는 코치진의 정서적인 학대, 동료 선수의 괴롭힘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8개월간 조사를 벌여 실제 정 군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포FC 코치진 3명, 중학 시절 감독 1명, 중학 시절 괴롭힘을 가한 동료 선수 1명 등 총 5인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 측에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정 군 죽음 이면에 상시 합숙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합숙 생활 도중 있었던 식사시간 규율, 휴대전화 사용 제한, 삭발 등의 벌칙이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제한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상시 합숙은 지도자와 선후배 사이의 규율이 밤낮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스포츠계 폭력의 근원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았다.

합숙소 내 괴롭힘, 아이는 혼자 견뎠다

정 군은 제주도에서 자랐다.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유소년 축구팀에 합류했다. 평일에는 화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축구팀에서 훈련을 하고, 주말에는 제주도 본가나 경기도에 있는 친척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합숙 생활은 정 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중학교 2학년 때 함께 생활한 동료 선수 김 모 군의 괴롭힘이 1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 군은 정 군에게 자신이 먹은 식기를 치우게 했고, 양치할 땐 치약을 짜게 했으며, 우유 간식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배식을 돕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학부모가 보다 못해 감독에게 항의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 군은 이러한 동료 선수의 괴롭힘에 대해 생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팀 지도자들은 어린 정 군에게 합숙소 안의 문제는 합숙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A라는 아이가 후배를 때렸는데 팀에서 가해 학생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코치, 감독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유소년 축구선수 故 정○○ 군의 아버지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도 팀 감독은 가해자 김 군에게 가벼운 경고 조치로 사건을 무마했다. 김 군은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다. 정 군이 세상을 떠난 이후, 스포츠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감독은 합숙시설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다고 항변했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어른의 차별이 낳은 부조리였다.

“감독님이 아예 밀어주는 애를 누구든 건들 수가 없잖아요. (중략) 다른 선수들은 그거에 10분의 1만 버릇없는 행동만 나와도 애들 죽어요.”

정 군 유소년팀 학부모

정 군은 동료 선수 약 30명과 함께 합숙소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중학교를 다녔다. 합숙소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학생 간 괴롭힘이었다. 학교와 팀은 별개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 팀은 매일 대형버스로 학생들을 학교까지 실어 날랐고, 학교는 팀이 신입생 환영회나 졸업생 환송식 같은 행사를 개최할 때면 공간을 내어줬다. 학교에 소속된 남학생 3명 중 1명꼴로 이 팀 선수였다. 유소년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학부모 역할을 하며 학교와 소통했다. 하지만 학교는 정 군을 보호하지 못했다. 학교는 축구팀 합숙소에서 벌어진 문제에 침묵했다. 사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유소년팀의 한 학부모는 축구팀에서 벌어진 괴롭힘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가 묵살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술했다.

학교는 취재진에게 학부모로부터 학폭위 개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학부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어디까지나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축구팀 합숙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했다. 정 군이 세상을 등진 지금도 학교는 같은 입장이다.

“글쎄요 합숙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 운동부가 아니라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권한이나 의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략) 그냥 근처에 테니스 클럽에서 테니스 치는 선수나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하는 선수나 똑같은 상황인 걸로.”

정 군이 다녔던 중학교 관계자

24시간 계속된 통제, '내일이 두렵다'

정 군의 고통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 군은 중학교 졸업 이후 K리그2 소속 김포FC 18세 이하 팀에 합류했다. 이번에도 합숙 생활이 계속됐다. 합숙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다세대 건물이다. 코치진은 이 합숙소에서 24시간 선수들과 생활하며 선수들을 통제했다. 선수 모두가 2주에 1번만 출석하면 되는 방송통신고에 학적을 뒀기 때문에 코치들과 함께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중학생 때보다 더 늘어났다.

문제는 코치진이 일정한 기준 없이 학생 선수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정 군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삭발해야 했다. 식사 중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겼고, 훈련 중에도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됐다. 자신의 행동이 팀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기도 했다.

“(예전에 한번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나 봅니다. 근데 총 24명의 아이 중에 우리 아이가 휴대폰을 본 걸 가지고 23명 전체 우리 아이까지 24명의 핸드폰을 일주일간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보기식 그래서 이 아이는 그 23명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치와 시기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유소년 축구선수 故 정○○ 군의 아버지

정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날에 윤 모 코치는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진 상태였다. 윤 코치는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 군에게 과격할 말을 쏟아냈다. 새벽 운동과 관중석 청소를 벌칙으로 지시했고, 정 군이 머리 훑터 때문에 특히 꺼려 했던 강제 삭발 벌칙도 내렸다. 정 군과 같은 방을 썼던 동료 선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다음 날 예정된 체벌 때문에 정 군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날 밤, 정 군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정 군은 SNS에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축구를 안 하고, 일반학생이었다면, 이보다 행복했을까.’ ‘내일이 두렵다.’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늘 위태롭고 불안했다.’

4년 전 이미 '합숙 전면 금지' 선언...유명무실한 스포츠 혁신

또 아이가 죽었다. 정 군이 합숙소에서 겪은 괴롭힘 피해와 코치진의 인권침해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숙소는 오랜 시간 운동부 폭력의 근원으로 평가받았다. 지도자가 24시간 선수들을 통제할 수 있고, 선배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동료 선수를 괴롭힐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운동부 합숙소 전반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평일 휴대폰 압수, 이성 교제 시 삭발 벌칙, 샴푸 꼭지 한 방향으로 정리, 관등성명 외치기, 삭발 강요, 선배들의 빨래 강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됐다.

정부 당국은 합숙소에 내재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교육부는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을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규제하고 있다. 교장에게 책임을 부여해 운동부의 상시 합숙을 근절토록 하고, 집이 원거리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만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기숙사 운영 시에도 학교 측이 지도자가 아닌 인원에게 기숙사 관리를 맡겨 학생 선수가 실 땀 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체육계 구조 혁신을 목표로 2019년 출범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역시 교육당국 지침에 발맞춰 합숙소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합숙소는 운동 기능 향상을 유일한 목표로 학생선수들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시 학교 운동부 10곳 중 4곳이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용수 스포츠혁신위원은 권고문을 발표하며 합숙소가 교육당국의 방침대로 별도의 사감 선생님을 배치한 기숙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이 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규제와 달리 정 군은 선수 생활 내내 상시 합숙을 하며 코치진과 함께 생활했다. 그 과정에서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당국의 규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운동부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학교 운동부와 학교 밖 운동부다.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다. 상시 합숙, 코치진의 합숙소 통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합숙을 하더라도 학교의 관리·감독 아래 있다. 문제는 학교 밖 운동부다. 학교 밖 운동부는 관리·감독 주체가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막상 상시 합숙 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인권보호를 위해 나서는 곳이 없다. 정 군이 통학했던 중학교는 전교 남학생 3명 중 1명이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축구팀 합숙소에서 발생한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다음 장 계속

김포FC는 유소년선수들의 합숙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교육당국이 세운 지침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상시 합숙 시설을 운영할 경우 코치진이 아닌 별도의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관리자와 학생은 상호 존중 속에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훈육과 벌칙 역시 코치진, 관리자가 임의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방식에 의해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학교 밖 운동부인 김포FC 합숙 시설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김포FC 측은 합숙 시설 운영 자체에 대해 김포시 당국에 보고할 뿐, 별도의 합숙 시설 운영 규정이나 유소년 선수 훈육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학교 밖 운동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대한축구협회 팀 등록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 5년간 학교 축구부가 166개 줄어든 사이 학교 밖 축구부(클럽팀)는 250개 늘었다.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부가 합숙소를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역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학교 밖 운동부는 기존 학교 운동부보다 상시 합숙 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2019년 황대호 경기도 의원이 지도자 협회를 통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학교 밖 축구부·야구부 140팀 가운데 90%가량이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학교 운동부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10팀 중 4팀꼴이었다.

“학교 밖 운동부, 교육부가 관리·감독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학교 밖 운동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은서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대표는 학교 밖 운동부일지라도 같은 팀 소속이면 같은 학교로 통학하는 현장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역시 2021년 4월 학교 밖 운동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부가 맡을 수 있게 학원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시행 중인 체육시설법으로도 학교 밖 운동부의 합숙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고 당시 스포츠인권특별단장이었던 김현수 전 단장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 교사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어 교육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학원법이 이미 지식, 기술, 예능, 개인 교습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에 체육만 추가를 해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 내부에선)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김대현 이영하 학교 폭력 재판을 바라보며

두산 베어스 이영하(26)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하와 LG 트윈스 김대현(26)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에 대해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기소 당시 군인이었던 김대현은 올해 1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하 또한 같은 이유였다. 검찰은 5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김대현과 이영하의 고교 야구부 후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과거 이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스포츠윤리센터가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돼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기소 당시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지 2주 만에 기소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의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이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 경찰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보도에 공개된 판결 내용과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며 '신고내용에 대한 일시·장소와 관계자의 현장 부재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 변호인 측의 인터뷰도 신고자·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기 보다 사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쉬움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정했고,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체육 현장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가와 설비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 등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초기에 개입하는 유일한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하다. 학계와 실무자들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처럼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수사가 의뢰될 경우, 자칫 조사 방향이 잘못되거나 누락이 될 우려가 있다.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중요한데, 이미 관련자들이 초기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만큼, 고발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확인 과 수사가 중요하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및 수사 와 판단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실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면 빨리 혐의를 벗어나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축구 이어 골프계도... 스포츠판 쥐고 흔들는 중동자본

오일머니가 스포츠판에 대한 영향력을 갈수록 확장해나가고 있다.

축구계에 이어 골프계까지 판도를 바꾸면서 중동의 입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는 지난 1월 포르투갈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에 이어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골잡이 카림 벤제마까지 품었다.

알이티하드는 지난 7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벤제마와 3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벤제마는 지난해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수상한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다. 1987년생으로 30대 후반을 향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가에서 19골로 득점 랭킹 2위를 차지했다.

벤제마는 2009년부터 14년 동안 세계 최고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뛰어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재계약이 유력했으나, 거액의 오일머니를 제시한 알이티하드의 제안에 행선지를 중동으로 바꿨다.

알이티하드가 벤제마에게 제시한 연봉은 무려 2억 유로(약 2781억원)로 추정된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330억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알이티하드가 9년 치 연봉을 한 번에 제시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축구계의 '사우디 특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에 도전하는 사우디는 최근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이어 2023 FIFA 클럽월드컵 개최권을 따냈다. 또 2026년 여자 아시안컵 유치도 추진 중이다.

사우디는 호날두, 벤제마를 시작으로 스타 선수들을 계속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사우디가 내년 손흥민(토트넘) 영입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또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2021년 3억 파운드(약 4856억원)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도 했다.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뉴캐슬은 2021~2022시즌 11위에서 2022~2023시즌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축구에 이어 골프계도 오일머니에 백기를 드는 모양새다. 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 시리즈를 비난해온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도 최근 결국 합병을 결정했다.

PGA는 투어 소속 주요 선수들을 LIV 골프가 데려가자, PGA 투어에서 LIV로 넘어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PGA 투어와 LIV 골프는 원수에서 동업자로 변신했다.

일각에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된 결과라는 시각도 나오는 가운데, LIV 골프의 물량 공세에 PGA 투어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도 이번 합병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인권 탄압국의 이미지를 씻기 위한 '스포츠 워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천문학적 자본을 앞세운 사우디를 외면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우디는 지난해 인접국인 카타르가 온갖 비난에도 2022 카타르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걸 지켜보면서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갖춘 오일머니에 스포츠계의 지각변동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성료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6120091>

경동대, 양주 메트로폴캠퍼스 '청사종합체육관' 기공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12_0002335796&cID=14001&pID=14000

동성제약, 도봉구 체육회와 '도봉 마라톤대회' 성료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44>

김제사랑장학재단,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급 규모 확대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218>

체육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ETRI와 연합포럼 개최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30613508047>

울진군체육회, 경북도민체전 '보조금 유용' 논란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23597.htm>

생활 체육 올림픽 '아태 마스터스', 수억 원 부려 선수 모집

<https://www.nocutnews.co.kr/news/5957893>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실무맞춤 교육 '취·창업 프로그램' 실시

<http://www.stoo.com/article.php?aid=87585147671>

'스포츠인권-인식개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성료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20038?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